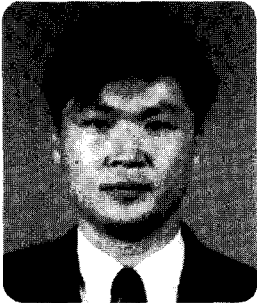


국내외 지적재산권 정보와 인터넷



정 언 용
 <특허청 공업서기관>

1. 소개

전자메일의 주소가 사회적으로 필수화 되어가는 한편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 웹(WWW)이라는 컴퓨터 네트워크인 신문, 방송등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빌게이츠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메인네임을 전혀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한바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도메인네임의 브로커가 제시한 가격이 1백만불을 호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거래된 도메인네임도 있는데, 도메인네임의 값이 digitalimagery.com의 경우 1백50만불을 초과하고, 웬만한 도메인네임은 10만불에서 12만불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에 대한 선점욕구와 열기가 점입가경이다.

대량의 정보중에서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상당량은 인터넷을 향해하며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노력여하에 따라 제공된다. 웹브라우저와 전자우편은 거의 팩스나 복사기 만큼 도처에서 발견되며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의 홍수속에 살아가는 정보인은 그 정보의 물결을 잘 이용하면 파도타기가 되고,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보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목 차

- I. 소개
- II.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 III. 정보의 유형
- IV.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보의 목록
- V. 결론

<이번호에 전제>

강조한 바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설날인 1998년 1월 28일(미국 1월 27일)에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1시간 12분동안 하였는데 100차례이상 박수를 받으며 국정연설을 이때 취임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인터넷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실로 케네디대통령이 당시 달에 대한 신개척정신을 갖는 만큼이나 높았다. 국정연설에서 특히 다음 세대는 오늘날보다 속도가 1000배나 빠른 인터넷의 세계를 체험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We should enable all the world's people to explore the far reaches of cyberspace. Think of this-the first time I made a State of the Union speech to you, only a handful of physicists used the World Wide Web-literally, just a handful of people.

Now, in schools and libraries, homes and business,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surf the net every day. We must give parents the tools they need to help protect their children from inappropriate material on the internet. But we also must make sure that we protect the exploding global commercial potential of the internet. We can do the kinds of things that we need to do and still protect our kids."

여기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얼마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내본다.

첫째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의 정부조직에 연결하고 싶다면, 어느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웹사이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까?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미국 특허법령(35USC) 최신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여러 곳에서 접속할 수 있기에, 접속하기가 쉬운 것이다.

IBM기업은 미국에서 5년 연속 특허등록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등록 건수와 기업을 1위부터 10위까지 알고싶다. 어느 웹사이트로 들어가야 할까? 이것이 세번째 질문이다.

끝으로 미국 CAFC(항고순회재판소)의 지난 판례를 조사하고 싶다. 어느 사이트로 가면 될까?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다.

인터넷에는 지적재산을 다루는 실무자에게 있어서, 관심을 끄는 정보들이 날로 증가하여 마케팅이나 광고, 공익적 관점등 나날이 그 유용성과 역할 제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인터넷 정보는 월드 와이드 웹(WWW)의 프로토콜인 HTTP의 성장을 통해서 넓은 범위의 자료를 더욱 사용하기 쉽게 되었다. 동시에 인터넷 접속은 점점 간단해져가고 있으며, 웹에 공개된 각종 기능적인 도구로 온세계의 정보를 제공받기가 더욱 용이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정보를 탐색하다보면,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능적인 도구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어느새 정보의 드넓은 바다의 싱싱한 정보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기술적 정보자료는 짧게 언급하고, 지적재산의 실무자에게 흥미로운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전문가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계치를 찾을 때는 그 데이터가 상당히 포변화된 통계 위주라서 흥미로울 것 같지 않으나, 점차 성실하게 통계치를 갱신하는 정성을 여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또다른 한편 넓은 주제 영역의

기술적 정보를 찾는 경우에 충분하고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인터넷 정보(인터넷에 나타난 자료 중에서도 유용한 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너무 자주 변화하고 눈깜박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한다. 이제 이 지상을 통한 정보의 공개로 몇몇 지적재산권 정보가 분주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사라지고만 정보로 인해서 도달할 수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인터넷의 뼈아픈 단점이 아닐 수 없다.

II.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왜 지적재산 실문자에게 있어서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유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좋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두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보의 입수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그것은 독자에게 세계 곳곳의 유용한 지적재산 정보에 관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들 정보의 가공으로 훌륭한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거대한 힘과 가치는 전세계의 정보를 즉시 접속가능하다는 능력에 있다.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법령과 정책적 변화가 훨씬 더 쉽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여타 다른 국가의 법령과 실무에 관한 고객들의 문의를 융통성 있고, 훨씬 간편하게 다룰 수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국가와 개인에게 여론과 정책분석, 의견 등 여러 주제들을 단시간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하여 다량의 논문이 발표되고,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호한 표현도 눈에 띄나, 대체로 그 결과는 양호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Dialog, Questel-orbit, STN 등의 상업적 호스트를 거쳐 특허 또는 상표의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검색의 진보성에 감탄을 할만 하다.

WWW를 위한 가장 최근의 소프트웨어는 net robots, spiders, worms, crawlers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Mosaic과 Lycos라고 불리우는 것은 상업적 호스트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검색 언어와 비교할 수 없으며,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 상당히 투박한 검색도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컴퓨터에 의해 검색가능토록 시도되고, 다운로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장기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공유소프트웨어(shareware)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이용자입장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시장논리에 의해 인터넷 경영이 활기를 띠어갈 것이고, 일정한 시일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다.

III. 정보의 유형

1. 특허청

다음의 기관들은 정보의 제공, 법학, 정책 등의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심사정책, 관련조항, 법률 등의 최근 변화 추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What's New"의 색인

표에서 그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이트들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언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의 몇몇 국가의 특허청은 축약하여 간략하게 소개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에 인터넷을 경유하여 AIDS 관련 특허의 전문을 만들어 냈으며, 한편 지난 20년간의 미국 특허공보를 초록과 색인을 만드는 구성을 하였다. 한편 AIDS관련 정보는 현재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등에서도 관련 특허 공보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WIPO에서는 세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조직을 한번에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다.

2. 유럽 지역

유럽 특허청은 마젤란 3스타 사이트에서, 미국 특허청은 마젤란 3스타 사이트와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탑5%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미국 특허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서 등 각종 통지서와 공식자료를 발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하도록 짜임새있게 구성을 해오고 있다.

그 밖의 정보자료를 알아본다. 비록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WWW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할 지라도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나 전략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입법부를 거쳐보야 그 지속성 여부가 달려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외무부나 통산부, 입법부 등의 검색을 통하여 한 국가의 지적재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입법부의 법률 정보자료와 연관지어 제공되곤 한다.

유럽지역의 웹사이트는 EUROPA로서 이는 유럽공동체의 목적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EUROPA 전 페이지의 검색을 제공한다. 최근 검색에 의하면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탑 5%에서의 유럽공동체의 지적재산에 관한 소식, 정책, 논점 등을 찾을 수 있다.

유럽지역의 법률 자문부에서는 특허와 저작권 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 정보의 페이지를 싣고 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EC의 공학에 관한 주제의 색인은 지적재산권의 가장 가치있는 정보중의 하나이다.

산업의 공동 협력을 위한 EU-일본국 센터는 유럽 공동체와 일본의 통상성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Johogen 연결망은 통상산업에 관한 일본국의 정보원천을 EU-일본국 센터를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허관련 공보도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의 창구이다.

3. 일본 지역

일본국 과학 기술 정보센터와 일본국 과학기술 협회는 외무성, 경제기획국, 산업연구 협회, 일본국 대외 무역협회, 국제산업무역협회(MITI), 일본국 특허청 등에서 WWW 사용자에게 해당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MITI의 홈 페이지는 지적재산권과 무역 정책에 관해서 영어, 일어로 모두 열람이 가능하며, 덧붙여 경제기획국도 영문으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청은 선행기술 검색에 유익한 MIMOSA(일본특허공보 수록)의 판매와 소개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키워드로 검색가능한 코너를 설정하였다.

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과도하다고 말할 정도로 한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심리중인 법안일지라도 법률 영역내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미국에서도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세 연방법원들과 다섯 개주 항소법원만이 온라인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콜로라도주는 법조계로서 최초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오늘날 웹사이트로 모든 법률사무소들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나 항소법원의 의견을 온라인안에서 찾으려 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마케팅분야, 조사분야, 통신 및 네트워킹 등의 분야에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최상의 법률분야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당연히 법률분야에서 최상의 질로 만족스러운 법률 관련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터넷 법안의 도서관 역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 법안과 조약의 장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국은 미국 정책과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모은 장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지적재산의 논점을 다루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수많은 장서를 제공한다. 미국정부의 인쇄국은 미국 연방정부내의 모든 국단위의 정보자료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색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색인 중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한 색인은 200건 이상이나 발견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미국 연방정부내의 공공의 정보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내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정보를 획득하기까지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의회의 도서관은 저작권청의 모체이기도 하다.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각 사이트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관한 막대한 정보와 저작권에 관한 풍부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CORDIS 프로젝트인데, 저작권청에서 저작출원서의 전반적인 처리를 전자출원화하는 새로운 시도 방법으로 인터넷 상에 디지털의 형태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도서관은 각 주제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인터넷 정보의 포괄적인 주제의 장서를 제공한다. 미국 국립기록보존소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평과 제안된 규칙 등을 포함하여 검색가능하고 복제토록 제공한다.

4. 기타 정부조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정부도 강력하고 유용한 정부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내고, 풍부한 지적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캐나다 지적재산권청은 불어와 영어로 검색가능토록 제공하고 있다.

IV.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자료의 목록

1. 원안 자료

미국 지적재산권 협회(AIPLA)에서는 지적재산권 법내 기본정책의 논점을 다룬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허여 온라인센터(CCCO)는 저작권을 다루는 장서를 훌륭하게 관련지어 모아 놓았다.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WTO)에서는 WTO내의 TRIPS와 관련한 협

정하 지적재산권의 정보의 모음을 볼 수 있다.

미주기구(OAS)에 의해 설치된 대외무역정보 시스템에서는 무역관련 정보를 찾기 쉽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적재산권의 실무차원의 자료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또한 국제도서 연합회와 협회에서는 지적재산과 관련한 철학적 논쟁을 다루는 정보도 일부 다루고 있다.

영어로 된 목록도 포함하는 일본국 정보 접속 프로젝트는 일본국 특허 제도를 안내하고, 무역정책에 관한 토론자료와 실무와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일본에 관한 정보와 일본정부의 사이트를 제공한다.

2. 대학 정보

1992년에 개시한 이래, 법률 자료의 온라인의 발행과 하이퍼텍스트 기술의 적용으로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여 인터넷상 최초로 법률분야의 웹사이트를 1993년에 Cornell Law School은 시도한 것이다. 이 사이트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의 윈도우에 기초한 웹브라우저인 Cello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의 견해의 게시로 빠르게 선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되었으며, 후에 뉴욕 항소법원의 결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 미국 법령에 대한 하이퍼텍스트 버전은 가장 심도깊은 특징으로 간주된다. 한편 오랫동안 이 사이트는 헌법이나 민사소송의 분야에서 웹상에 중대한 서류의 발간으로 유명하다. 또한 웹상에 발행된 법률자료의 모든 곳이 링크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넬 법과 대학의 법률정보협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방대하게 구성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저작권, 특허, 상표, 부정

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이며, 하이퍼 텍스트로서 상호 참조가 가능하며, 검색할 수 있다. 칼럼비아 대학의 기술 연구협회는 교육생의 요구에 맞춘 저작권에 관한 원안의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한다.

프랭클린 피어스 법학센터에서는 지적재산 정보의 훌륭한 장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비법학도에게 지적재산의 개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한편, 조지 타운 대학의 법과 대학은 연방고등 순회재판소(CAFC)의 판례 장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빌라노바 대학의 특허정보제공 사이트는 인터넷상 특허정보를 훌륭하게 색인한 자료를 제공한다. 위시본 법과 대학은 WWW상 법률 저널의 대부분을 수집하였으며, 실험적으로 전문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들 저널 중 상당 부분은 지적재산 관련주제들이다.

3. 기타의 지적재산권 정보의 목록

호주 법률정보 협회는 지적재산의 판례를 포함하여 검색가능한 장서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WWW색인과 검색 도구의 페이지와 지적재산 정보를 모은 장서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개별적으로 소장된 목록과 자료

미국 통신협회(ACA)는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자료를 알파벳 순으로 제공한다. 또한 EFFIPO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의 기록이 사설 모음으로 제공된다. 프랭클린 피어스 법학 센터의 지적재산권법 시장에서는 유럽 특허도서관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적재산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특색은

검색 및 조사를 위한 도구의 모음과 인터넷 지적 재산 검색을 위한 전략 등이다. 한편, 사이노 링크 전략 공사의 사이트는 중화민국(PRC)의 특허상표와 저작권법의 영문명세서를 제공한다.

일본 사이트로부터 지적재산 정보는 일본국 특허법의 전문과 심사기준, 특허와 상표법과 실무 동향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호주의 마운틴 맨 그래픽스사는 WWW지적재산권법 자료의 타이틀에서 호주지적재산권법의 모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GPO Access사이트는 풍부한 연방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그 서비스가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 행정부와 입법부 자료의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미국 법령, 연방 법령, 의회 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4500 이상의 파일로 연방내 정보를 무료로 즉시 공중과 접속이 가능하다.
- 정부 정보의 위치 서비스, 경로 색인, 군사용 인터넷 사이트와 1350개 이상의 연방 기관의 색인, 미국 정부 간행물의 카다로그를 포함한 정부 안내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법률 사무소, 용역 회사

대다수의 법률사무소가 마케팅 분야의 새로운 추세로 생각하며, 투자하는 웹사이트는 고객에게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며, 매력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무소내로 흡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방문자들은 첫번 페이지에게 고객 서비스의 명단에 의해 맞아 들이게 된다. 이러한 명단내 첫번 입회에 의해 방문자 이름의 입력에 따라서 그들의 변호사를 직접

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웹사이트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연결된 포괄적인 모음이 있으며, 마젤란 4스타 사이트와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탑5%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글렌 에스. 바칼의 사이트는 지적재산에 초점을 맞추어 사설을 볼 수 있으며, 이 사이트는 영업비밀에 관한 참신한 모음과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엿볼 수 있다.

펜윅과 웨스트의 모음은 고도 기술에 관한 논점에 특히 초점을 둔다.

고든과 글릭슨은 지적재산권의 기술정보의 진보의 충격에 관한 서적과 논설에 대해서 발행과 조언을 다루고 있다.

알. 마이크 헬리건 변리사는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자료의 훌륭한 모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젤란 3스타 사이트와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탑 5%사이트를 통한다.

쿠에스터 법은 다른 사이트와 관련된 논설, 특허정보의 포괄적인 모음의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마젤란 4스타 사이트와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탑5%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특허분야에 있어서 최상의 사이트라고 단언할 수 있다.

라다스와 패리는 국제적인 지적재산의 발달을 알리는 특별한 정보 게시판과 뉴스 레터, 사설의 대단위 모음을 제공한다.

맥콜믹, 파울딩, 후버는 법률 저널과 뉴스레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록을 갖는 인터넷 정보의 최상의 목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재산 주제를 갖는 뉴스레터의 모음을 볼 수 있다.

오페달과 라이슨은 또 하나의 매우 훌륭한 장서이다. 이 사이트는 지적재산 변호사가 되길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포함하여 지적재산에

포함된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알 앤 제이 특허작성사이트는 전략적인 특허 웹 사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특허의 모음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지적재산 검색 정보와 관련지어 긴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네일 테이트바움과 협회는 캐나다와 미국특허청의 심사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러시아와 일본 정보에 대해서 주목할 만 하다.

웰즈, 존, 로버트, 그레고리와 마킨은 정보의 원본과 관련한 정보의 모음을 제공한다. 주요한 페이지와 원안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도 제공한다.

6·25 한국전에도 공병장교로 참전한 바 있는 피네간에 의해 창설된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회사인 피네간 헨더슨 법률사무소에서는 20여년간 미국 특허청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특허청 차장을 끝으로 퇴직한 찰스 변호사가 쓴 미국 특허청의 최근 동정, 사무소내 변호사들이 쓴 논문 등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전자메일을 통하여 변호사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웹사이트가 알차게 링크되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6. 뉴스 군과 전자우편 목록

상기 주지한 바와 같이 많은 변리사들은 지적재산과 관련한 인터넷의 뉴스군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정보의 군은 법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자주 값진 역할을 하며, 특허와 다른 지적재산 주체의 국제적인 대화를 나타내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가장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comp.patents

misc.int-property

misc.legal.computing

저작권법의 전자우편 목록(CNI-저작권)은 네트워크 정보의 연합(CNI)에 의해 주도되며, 정보 CNI-저작권의 메시지는 lisproc@cni.org.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특허법 전자우편 목록 'patent-1'은 lisproc@ftplaw.wuacc.edu를 통해서 "subscribe patent-1"의 메시지를 보내면 볼 수 있다.

법률 소식을 모든 면에서 제공받길 원한다면, Law Journal EXRTA! 사이트를 방문하면 될 것이다. 이 사이트를 방문해야 될 근거는 National Law Journal의 발행인에 의해 후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온라인 뉴스 자원에 의해 보도된 법률뉴스의 총괄, National Law Journal, New York Law Journal, 기타 정보 등으로부터 법률의 헤드라인을 접속할 수 있다. 뉴스 이외에도 뉴스의 수집, 각서, 기타 정보관련한 링크로 깊이 있는 논문 등 34개 이상 분야의 실무 영역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Law Technology Center에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의 관리와 경영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곧 이 사이트와 American Lawyer Group내 관련 사이트들과 서비스들이 합쳐져 단일 네트워크로 결합될 것이며, 홈페이지내 게재된 American Lawyer 신문과 잡지, Law Journal의 간행물은 이 사이트의 특별한 장점이 될 것이다.

7. 검색도구와 색인을 이용한 기술적 정보

인터넷상의 유용하고 막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색인하고 모으기 위한 웹검색장치의 발달을 앞당겼다. 이러한 새로운 조희의 전략은 대

체로 부울대수로 만들어진 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온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생소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검색도구는 'and', 'or', 'not' 등의 키워드로 조회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가장 세부적인 조회로 먼저 들어가서 서비스에 반응하며, 목록의 가장 적합한 결합을 가져 오는 적절성을 잘 이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률적 기술적 정보를 찾을 경우, 동일 개념의 여러 단어를 이용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최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망하는 정보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검색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색장치와 관련한 수많은 모습 뿐만 아니라 유용한 검색도구의 보조도구의 모습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색인은 해당 전문연구원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매우 귀중한 정보이다. 유럽 특허청의 사이트는 인터넷상에 상업적 특허정보에 대한 훌륭한 안내 역할을 한다. 수많은 정보 중에 지적재산정보는 최소한 무료로 제공되어진다는 점도 마음을 가볍게 한다. 한편, 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특허청(USPTO)은 20년간의 특허에 관한 서지적 정보와 초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행기술이 인터넷 전자출원 서류의 사용과 함께 수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즉 입증할 수 있는 날짜와 안정되고 비개정된 서류는 자주 불기재 되어 있으며, 많은 서류가 짧은 시간 후면 사라져 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몇몇 주석자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였고 미구의 저작권청은 저작권의 전자출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자출원, 발행, 허여 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고도의 기술제작자들은 처음에 웹사이트에

정보를 산출하곤 하였으나, 이것은 항시 서류의 발행에 뒤따라서 발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발행된 전자 선행기술의 현실과 괴리는 날로 증가할 것이다. 다른 유형은 전자형태의 탐지적인 발행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책자발행의 고비용산출에 기인한다.

8. 법률정보 검색분야

변호사나 법학 교수를 비롯하여 법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단연코 FindLaw를 북마크해 놓았을 정도로 이 웹사이트는 효용도 인기도 높다. 북 캘리포니아의 법학 사서의 워크샵에서 준비된 하나의 인터넷 수단으로서 1994년에 시작되었던 것이 웹상에 법률정보의 최상의 정보검색 사이트로 만장일치 결정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하나지만 법률 조사로부터 법학 교육, 카운셀링의 역할을 위한 것까지 이를 정도로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몇 개의 사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다. FindLaw 안내의 가장 핵심은 판례법, 민법, 형법, 법률 협회, 법 논평 뿐만 아니라 30여개의 실무 영역까지 그 정보원이 폭넓게 색인되어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혁신적인 검색 엔진인 LawCrawler의 안내로 자칫 법률사이트로 제한적인 일반 검색엔진보다 더 정밀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FindLaw는 또한 법령, 법원의 의견, 인터넷상에서도 가장 귀한 1893년 이래 대법원의 의견도 제공한다는데 특별한 장점이 있다. 온라인 CLE나 LegalMinds 등으로 고루 구비하여 법률 토론의 그룹을 위한 자료의 압축, 웹상에서 법 논평의 검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V. 결론

우선, 상기 소개의 관에서 질문을 네가지 던졌으므로 이에 대한 정답부터 알아본다.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필자가 자판을 두드리는데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보가 가공되고 처리되어 다양한 장소에 링크되고 접속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예 웹사이트가 등장하여 혁명적으로 간단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도 하고, 이 순간 제공하고 있는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자해지로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수많은 해답 중 하나를 제시해본다.

1번 해답: http://www.wipo.org/eng/general/pcipi/otherwww/ipo_web.htm

2번 해답: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peeches/98-1.htm>

3번 해답: <http://www.kuesterlaw.com/lawrule>

4번 해답: <http://www.finnegan.com/cafc>

오랜만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선 사용자들은 요즘래 국내에서도 산업재산권 관련 웹사이트가 혁신적으로 다양하게 신설되는 것을 보고 가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개인 발명가에서 고려대, 경북대 대학생, 공무원,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그 웹사이트의 창안자가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여기 저기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웹사이트를 마케팅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때, 진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세계인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영문이나 일문, 불어 등의 다양한 언어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여러 분야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투자 전략이 '9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

46개국 중 31위의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며,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사회적 인프라를 적절하게 구축하면 다가오는 21세기의 험난한 파고를 여유있게 바라보며 써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의 정부는 공공 글로벌 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운명적인 연을 깨닫고 있다. 재무, 은행, 선적산업등에서도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선도적인 방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국적 기업은 인터넷상에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회는 폭발할 지경이고 일본의 경우처럼 특히 전자출원이 실행되어 잘 진행되고 있는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보화를 위해 3조달러를 투자했는데, 그중 1조달러를 잘 못 투자를 했다는 자책감에 큰 코를 좌우로 흔들었다.

현대 지적재산권의 실무는 범위면에서 국제적이며, 글로벌 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실한 중심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이를 등급화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메일을 하는 경우를 1학년으로, 넷스케이프등으로 WWW를 탐색하는 경우를 2학년으로, 단지 수신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홈 페이지나 Mall로 발신까지 하는 경우를 3학년으로, 자바 등으로 인터넷에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경우를 4학년으로 차별화하기도 한다. 하기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교수, 대학생, 공무원 등의 개인에서 법률사무소, 정부조직, 상업적 서비스 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정보의 큰 물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한다면, 써핑으로 다량의 정보를 마음껏 즐기며 첨단 비즈니스를 초고속으로 추구하여 목전에 둔 21세기를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발탁9805**